

Investment
Institute

독일 산업의 반등

Cross Asset Investment Strategy

2026년 7월~8월 • 전문투자자 전용 자료

목차

독일의 산업 부흥에 대한 기대감 고조

3

독일의 개혁: 유럽 주식시장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6



Monica Defend

Head of Amundi Investment Institute

"독일의 개혁 패키지는 중대한 정책 전환을 의미함. 대규모 공공 투자와 결합된 이러한 구조 개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뢰를 높이고 성장을 강화할 수 있음. 모멘텀이 강화됨에 따라, 독일의 재도약은 유럽 전역에 걸쳐 더 경쟁력 있고 회복력 있는 경제적 미래를 뒷받침할 수 있음."

"투자 주도형 성장 모델로 전환하는 독일의 움직임은 유럽의 장기적인 설비 투자 전망을 뒷받침함. 투자자들에게는 독일의 중소형주와 유럽의 재산업화 수혜 기업에서 가장 유망한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임."



Vincent Mortier

Group Chief Investment Officer

정책 초점

독일의 산업 부흥에 대한 기대감 고조

저자

**Didier
Borowski**

 Head of Macro Policy
Research, Amundi
Investment Institute

주요 시사점

7월 2일, 연립정부(CDU/CSU+SPD)는 경제 활성화, 경쟁력 제고, 복지국가 수호 및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영향력 확대 억제를 목표로 하는 34개 구조개혁안에 포괄적으로 합의함.

단기적으로 이러한 개혁이 GDP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며, 이는 공급 측 개혁에서 흔히 나타나는 J곡선효과와 독일의 과거 경험에도 부합함. 그러나 이번에는 대규모 인프라 및 국방 재정 부양책이 병행됨에 따라 신뢰도 개선을 통한 소폭의 성장을 제고(2027년 약 0.2%p)와 일부 산업에서의 조기 효과가 기대됨.

연립정부가 정치적 합의를 효과적인 정책 이행으로 연결할 경우, 독일은 노동력, 관료주의, 투자, 공공행정 및 혁신과 관련된 여러 장기적 제약 요인을 해소하고 2020년대 초반 이후보다 양호한 성장 궤도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유럽도 마찬가지임. 정책당국이 현재 추진 중인 모든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경우, 유럽은 투자 프로젝트를 보다 원활하게 조달하고 새로운 성장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경제정책의 대전환

독일 경제는 여전히 미약한 회복세, 부진한 생산성 및 지속적인 공급 제약을 겪고 있으나, 대규모 인프라·국방 지출 프로그램과 34개 구조개혁안의 결합으로 중기 전망이 개선되고 있음. 2027년 성장률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나, 개혁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유의미한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2026년의 가장 큰 변화는 재정 지원과 공급 측 개혁의 결합임.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부는 향후 12년간 5,000억 유로 규모의 인프라·기후 전환 투자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한편, GDP의 1%를 초과하는 국방비를 부채 브레이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례적인 재정 부양책을 시행함. 7월 초에는 세제, 연금, 노동시장, 규제 완화, 주택, 에너지 및 기술 부문을 아우르는 34개 개혁안을 채택함. 이는 경쟁력을 회복하고 인구구조 및 기술 변화에 경제를 적응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의심할 여지 없이 2003년 슈뢰더 정부의 '어젠다 2010' 발표 이후 가장 야심 찬 계획임.

재정 지원과 공급 측 개혁의 결합은 필수적임. 독일 경제는 단순한 경기 순환적 문제보다 노동력 부족, 행정 비효율, 낮은 생산적 투자 수준, 높은 에너지 비용 및 전통적인 수출 주도형 성장 모델의 쇠퇴와 같은 구조적 제약에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지출은 수요를 뒷받침하고 생산 역량을 확대할 수 있으나, 경기 부양 효과가 병목 현상으로 상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혁도 병행돼야 함.

개혁이야말로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경제로의 파급 경로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구분됨:

- **첫 번째 경로는 노동임.** 인구 고령화와 숙련 인력 부족이 잠재성장을 저해하고 있음. 연금 개혁, 노동공급 확대 및 노동시장의 일부 경직성 완화 노력은 이러한 구조적 병목 현상을 직접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임.
- **두 번째 경로는 생산성임.**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 장벽과 과도한 행정 절차가 공급 확대를 제한하고 있음. 독일은 관료주의 완화, 프로젝트 승인 절차 단축 및 혁신 부문으로의 자본 배분 확대를 통해 기술 확산과 민간투자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음.
- **세 번째 경로는 공공투자의 집행임.** 인프라 지출 확대가 지속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특히 공공조달, 계획 수립 및 지방행정 역량 측면의 행정적 병목 현상을 완화해야 함. 이는 현재 독일의 정책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임. 단순히 지출을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산 계획을 실제 집행되는 공공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 과제임.
- **네 번째 경로는 산업별 경쟁력임.** 독일 연방정부의 연례 경제보고서는 에너지 비용, 혁신, 수출산업 및 에너지 집약적·기술 주도형 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함. 중국과의 경쟁, 지정학적 긴장 및 글로벌 산업 재편에 직면한 상황에서 개혁은 자본과 노동을 생산성이 가장 높은 산업으로 재배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2027년 성장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

구조개혁 특유의 시차로 인해 내년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공급 측 개혁은 기업, 가계 및 공공부문의 점진적인 조정이 필요하고 법률·규제의 시행에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GDP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 경쟁 촉진, 절차 간소화 및 숙련 인력 부족 해소는 우선 생산 여건을 개선한 후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게 됨.

독일 의회가 연말까지 개별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전망은 더욱 타당함. 이에 따라 2027년 초부터 즉각적인 거시경제 부양 효과가 나타나기보다는 개혁 효과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관료주의 완화, 일부 계약의 유연성 제고, 연금 개혁 및 선별적 감세 등 성장에 가장 우호적인 조치조차 기대심리, 노동공급, 투자 및 생산성을 통해 효과가 파급되므로 가시화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함.

독일의 과거 경험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함. 슈뢰더 정부가 2003년 '어젠다 2010'을 도입했지만 독일의 성장세가 즉각적으로 전환되지는 않았음. 노동시장과 인센티브 체계의 변화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2006년 이후야 거시경제적 효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함. 현재는 당시와 상황이 다르지만, 초기 효과는 미미한 반면 수년 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J자형 경로'의 가능성을 뒷받침함. 2027~2028년을 전망할 때 급격한 개선보다는 점진적인 회복을 가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

긍정적인 신뢰 증진으로 이어질까?

개혁 자체가 단기적으로 GDP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지만, 개혁안 채택은 기업환경과 투자 기대를 빠르게 개선하고 기업과 시장이 독일 경제의 향후 경로를 바라보는 시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 초기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발표된 조치를 독일의 투자 및 고용 창출 매력에 높아질 것이라는 신호로 평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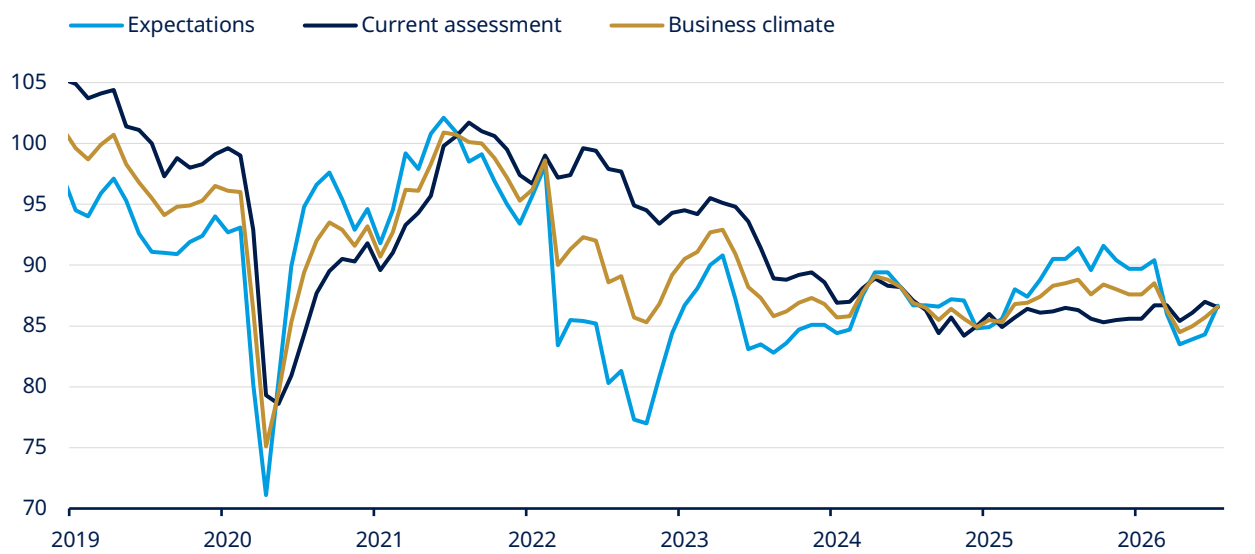
이러한 관점에서 2027년까지 약 0.2%p의 추가 성장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현실적임. 이는 구조개혁 자체만의 효과라기보다 재정 부양책과의 상호작용, 경제정책의 명확성 제고 및 일부 산업의 이익률과 시장 기회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에 따른 것임. 독일 경제연구소들은 새로운 차입 여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2026년부터 1년간 GDP 성장률을 약 0.5%p 높일 수 있다고 이미 추정한 바 있음. 따라서 신뢰도 개선과 개혁의 정책 신뢰성에 따른 추가 효과가 이보다 제한적인 수준으로 나타날 여지가 있음.

다만 일부 산업에서는 효과가 더 빠르게 가시화될 수 있음. 초기 효과는 미시경제 및 산업 차원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국방, 인프라, 에너지, 주택, 전기장비, 반도체, 배터리 및 공공투자 관련 서비스 부문에서 수주잔고, 예상 마진 또는 밸류에이션이 우선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음.

정책의 실행력과 일관성은 최초 발표만큼이나 중요함. 2030년대 초까지 인프라 현대화가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행정적 병목 현상이 완화되며, 노동공급 감소세가 둔화되고, 혁신 산업으로의 자본 재배분이 지속될 경우 독일은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산업 경쟁력을 일부 회복할 수 있음. 일부 경제학자들은 추세 성장률이 현재 연 0.4%에서 2030년 연 0.7%로 상승해 거의 두 배로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함. 절대적인 수준에서는 여전히 낮지만, 최근의 경기 정체에서 벗어나는 유의미한 전환이 될 것으로 판단됨.

경제 기적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여전히 강력한 산업 기반과 우수한 기술 역량을 보유한 독일 경제는 신뢰할 만한 회복을 달성할 수 있음. 특히 정부가 다시 투자 주체로 나서고 있다는 점도 회복을 뒷받침하는 긍정적 요인임.

개혁을 통해 독일의 투자 매력도와 성장 전망이 개선되면서 IFO 설문조사상 경기심리도 회복되고 있음



Source: Amundi Investment Institute, Bloomberg. Data as of 29 July 2026. IFO German Business Indexes, compiled by the IFO Institute, reflect current business conditions and expectations across German companies.

독일의 개혁은 유럽 전역에서 진행 중인 개혁과 맞물려 있음

드라기 및 레타 보고서는 구체적인 계획으로 발전했으나, 이행 수준은 여전히 고르지 않음. 핵심 원자재와 운송 부문에서는 가장 큰 진전이 나타난 반면, 산업 간 공조와 혁신 자금 지원은 지연되고 있음. 레타 보고서의 ‘하나의 유럽, 하나의 시장(One Europe, One Market)’ 구상은 자본시장, 에너지 및 디지털 분야의 개혁 시한을 2027~2028년으로 설정함. 2026년 상반기에는 제28체제(‘EU Inc.’), 저축·투자연합(SIU) 패키지, 유동화 개혁 및 산업가속화법 등 4개 입법 과제가 추진되기 시작함.

이러한 정책들은 유럽 통합을 지지하는 새로운 논리의 기반이 되고 있음.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은 이제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자본지출 프로그램으로 구체화되고 있음. SIU와 유동화 개혁은 새로운 자금조달 경로를 확대하고, 산업가속화법은 수요 측 인센티브를 재편하며, 유럽안보행동계획(SAFE), 유럽방위산업계획(EDIP) 및 유럽투자은행(EIB)은 방위 조달을 뒷받침함. 한편 탄소 집약적 에너지의 비용 상승으로 전기화가 수익성 높은 투자 테마로 부상하고 있음.

투자자 관점의 전망은 명확함. 방산업체, 전력망 운영업체, 에너지 저장장치 공급업체, 핵심 원자재 가공업체 및 분절된 산업 가치사슬 내 통합 기업들은 보조금과 공공조달이 뒷받침하는 다년간의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됨.

주식

독일의 개혁: 유럽 주식시장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자

Federico Cesarini
Head of DM Equity, FX
and Digital Assets,
Amundi Investment
Institute

개혁과 재정 패키지는 실질적으로 대규모이며 경제 체제의 전환을 가져올 잠재력이 있으나, 아직 독일 및 유럽 주식에 대한 무조건적인 매수 신호로 보기는 어려움. 가장 큰 상방 리스크는 신뢰도 회복에 따른 민간 설비투자 사이클의 본격화임. 반면 핵심 하방 리스크는 정책 이행 실패와 채권금리 상승이며, 이 경우 생산적 투자 프로그램이 주식시장에 상대적으로 비우호적인 재정 확대로 변질될 수 있음. 다만 침체된 신뢰도, 개혁에 따른 높은 개선 여력 및 제한적인 환율 상승 동력은 상대적으로 뚜렷한 승자와 패자가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함. 독일 대형 글로벌 수출주보다 내수주와 중소형주를, 중국 관련주 및 경기방어적 수출주보다 유럽 재산업화 공급망 관련주를 선호하며, 주변국 시장의 상승 모멘텀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단기적으로 이란·호르무즈발 에너지 충격이 ECB의 금리 인하보다 인상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은 시장 전반의 밸류에이션 재평가를 제약하는 요인임. 다만 아직 이러한 상대적 선호 구도를 바꿀 정도는 아님.

독일 정책 패키지와 주식시장 지원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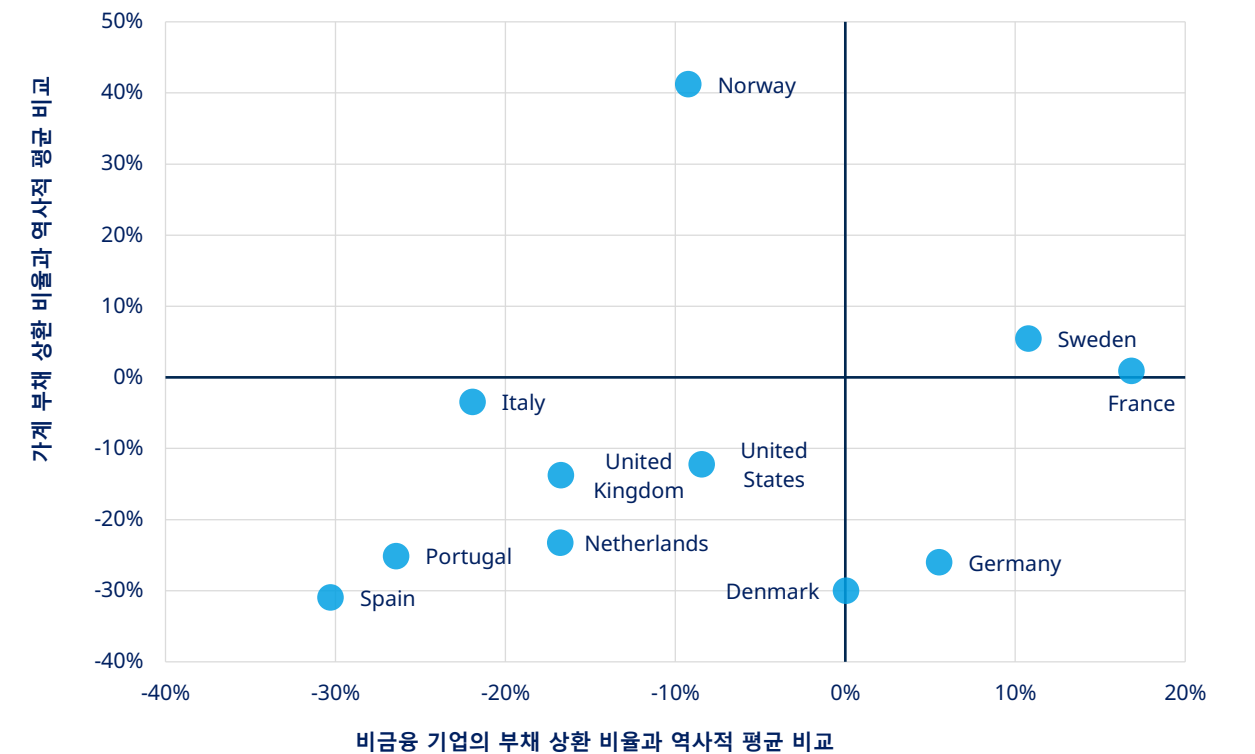
독일은 재정 긴축과 대외 의존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투자 주도형 경제 모델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고 있음. 개혁은 성장의 규모와 질을 모두 개선할 수 있으며, 공공·민간 부문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이번 패키지는 일반적인 재정 부양책보다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됨. 수요와 공급 모두에 영향을 미쳐 일시적인 재정승수 효과에 그치지 않고 민간 설비투자를 유도할 잠재력이 있기 때문임. 특히 인프라 및 국방 지출은 전통적인 일회성 부양책이 아니라 정부의 차입 경로와 산업 수요의 가시성을 변화시키는 조치이며, '어젠다 2030' 개혁은 기존 성장 기반에 추가적인 동력을 제공함.

신용 여건과 재무상태상 여력도 중요함. BIS는 가계와 기업을 포함한 민간부문의 소득 중 이자 및 원금 상환에 사용되는 비중을 측정함. 독일은 유럽 주변국 및 영국과 마찬가지로 민간부문의 원리금 상환 부담 비율이 과거 수준 대비 제한적으로 상승하는 데 그쳐 추가 차입 여력이 존재함. 이러한 여력은 아직 잠재된 상태이며 현실화에는 전제 조건이 필요함. 은행의 위험선호도가 관문으로 작용하며, 에너지 긴장 완화와 ECB의 통화 긴축 종료는 이를 여는 요인이 될 수 있음. 해당 여력이 현실화될 경우 신용 사이클이 더욱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성장세가 현재 예상보다 장기간 지속될 수 있음.

장기적인 성과는 여전히 불확실함. 기업이 투자, 임금 및 자본배분 행태를 변화시킬지, 은행이 대출을 확대할지, 투자수익률이 매력적인 수준으로 나타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현재로서는 신뢰도 경로가 실질적인 정책 파급의 핵심 통로가 될 잠재력이 있으며, 단순한 신뢰도 수준보다 신뢰도 회복의 확산 여부가 더욱 강력한 촉매로 작용할 수 있음. 기업 및 소비자 신뢰도는 수년 내 최저 수준에서 최근에는 반등하기 시작했으며, 이란 전쟁과 에너지 가격 상승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따라서 개혁 효과는 아직 경제심리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지정학적 상황에 따라 좌우되겠지만, 향후 신뢰도 반등이 실질적인 추가 상승 잠재력의 핵심 원천임.

*"독일은 재정
긴축과 대외 의존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투자
주도형 경제
모델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고 있음."*

낮은 원리금 상환 부담은 레버리지 재확대 여력을 시사함



Source: Amundi Investment Institute, BIS. Last available data as of Q4 2025. The data set for debt service ratios reflects the share of income used to service debt for households, non-financial corporations and the total private non-financial sector.

작동 메커니즘: 이익과 주식 위험 프리미엄이 핵심 동인

큰 틀에서 주가 수익률은 이익 전망의 변화와 밸류에이션 변화에 의해 좌우되며, 밸류에이션은 일반적으로 주가수익비율(P/E)로 나타냄. P/E는 통상 무위험금리 및 주식 위험 프리미엄(ERP)*과 반대로 움직이는 한편, 장기 성장률 가정의 상향 조정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음.

독일의 경우 공급 측 개혁과 재정 패키지의 결합은 밸류에이션 확대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장기 듀레이션 주식보다 이익 전망의 상향 조정이 조기에 나타나는 기업에 유리함.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이익 전망 조정이 가장 신뢰도 높은 동력임.** 이번 정책 패키지는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매출과 영업레버리지를 높일 가능성이 있음. 독일 기업은 영업레버리지가 높은 만큼 일정 수준의 GDP 증가가 내수 경기민감주의 EPS를 더 큰 폭으로 끌어올릴 수 있음. 2026년 EPS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기 위한 문턱은 높은 편임. 시장 기대치가 이미 높고 '어젠다 2030'이 당해 실적 발표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기 때문임. 다만 (1) 에너지 부문을 제외한 EPS 성장률은 여전히 한 자릿수 초반에 머물러 있고, (2) 독일 내수주의 2027년 컨센서스가 광범위하게 상향 조정되는 움직임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이번 개혁은 내수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밸류에이션 멀티플(P/E)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엇갈림.** 현 수준에서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나타나려면 무위험금리의 하락 여력이 제한적인 가운데 주식 위험 프리미엄(ERP)이 축소돼야 함. 이에 따라 현재의 투자 여건은 2024~2025년보다 소폭 덜 우호적임.
- ERP 측면:** 개혁의 신뢰성 제고, 정치적 안정 및 극단적 하방 위험의 완화는 모두 투자자가 요구하는 위험 프리미엄을 낮출 수 있음. 현재 침체된 신뢰도가 반등할 경우 이러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아직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상승 여력임.

무위험금리 측면: 최근 에너지 충격으로 ECB의 통화정책 전망이 금리 인하에서 인상으로 전환되면서 P/E 상승 여력이 제한되고 있음. ECB가 현재 시장가격에 반영된 수준만큼 금리를 인상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나,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날 경우 2027년 후반의 공격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아질 전망이다.

*ERP = expected equity return - risk-free 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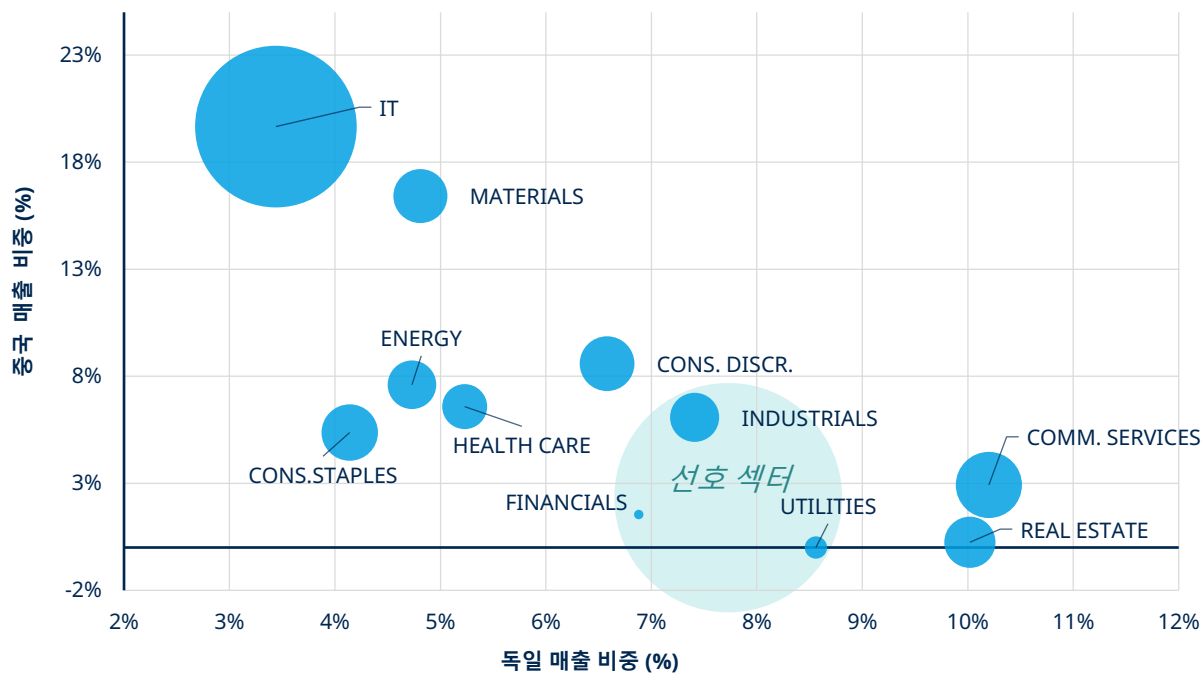
투자 시사점: 독일 및 유럽 내 포지셔닝 전략

당사가 판단하는 가장 매력적인 일차적 투자 대상은 독일 내 매출 의존도가 높고, 저렴한 에너지, 중국 수요, 약한 환율에 의존하는 수출 중심의 기존 독일, 유럽 경제 모델에 대한 상대적 의존도가 낮으며, AI 인프라 확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도 높은 분산투자 효과를 제공하는 기업임.

- 독일 내수 매출 비중이 높고 재무구조가 견조한 중소형 기업이 대형 다국적 기업보다 우수한 성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함. 중소형주는 재정 확대에 따른 직접적인 손해가 가장 크고, 유로화 강세의 수혜를 받거나 최소한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으며, 경기심리가 침체된 수준에서 회복될 경우 가장 높은 민감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정부지출 확대는 유럽의 재산업화 공급망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음. 자본재, 전력망 및 전력설비, 인프라 공급업체(안보 관련 공급망 포함)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유지함.
- 은행주는 유럽에서 여전히 확신도가 높은 핵심 투자 대상임. 개혁 패키지가 내수 설비투자과 신용 사이클을 촉발할 경우 은행이 핵심적인 2차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함.
- 소비 관련주에 투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함. 소비 관련주는 독일 개혁의 수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투자 대용 지표임. 해당 부문의 투자 매력도가 높아지려면 소비자가 개혁을 신뢰할 수 있다고 인식해 예비적 저축을 줄이고, 중국과의 전기차 경쟁 및 관세 등 자동차 산업의 역풍도 완화돼야 함.
- 금융주 및 내수 경기민감주에 대한 높은 업종 집중도와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거시경제·정치 환경을 고려할 때,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다른 시장보다 독일의 리플레이션 효과를 지속적으로 더 잘 반영할 가능성이 있음.

유럽 업종별 중국, 독일 및 AI 인프라 구축 관련 매출 익스포저

*버블 크기는 대만, 한국 및 네덜란드의 AI 반도체 팹 증설 관련 매출 비중을 나타냄.



Source: Amundi Investment Institute, Factset, GeoRev. Data as of 15 July 2026.

AII* Contributors

Didier Borowski

Head of Macro Policy Research, AII*

Federico Cesarini

Head of DM Equity, FX and Digital Assets, AII*

Chief Editors

Monica Defend

Head of Amundi Investment Institute

Vincent Mortier

Group CIO

Editors

Claudia Bertino

Head of Amundi Investment Insights and Publishing, AII*

Laura Fiorot

Head of Investment Insights & Client Division, AII*

Deputy Editor

Cy Crosby Tremmel

Investment Insights, AII*

Design Editor

Chiara Benetti

Digital Art Director and Senior Designer, AII*

Alice Girondeau

Junior Digital Publishing Specialist, AII*

* Amundi Investment Institute

IMPORTANT INFORMATION

This document is solely for informational purposes.

This document does not constitute an offer to sell, a solicitation of an offer to buy, or a recommendation of any security or any other product or service. Any securities, products, or services referenced may not be registered for sale with the relevant authority in your jurisdiction and may not be regulated or supervised by any governmental or similar authority in your jurisdiction.

Any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document may only be used for your internal use, may not be reproduced or disseminated in any form and may not be used as a basis for or a component of any financial instruments or products or indices.

Furthermore, nothing in this document is intended to provide tax, legal, or investment advice.

Unless otherwise stated, all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document is from Amundi Asset Management SAS and is as of 30 July 2026. Diversification does not guarantee a profit or protect against a loss. This document is provided on an "as is" basis and the user of this information assumes the entire risk of any use made of this information. Historical data and analysis should not be taken as an indication or guarantee of any future performance analysis, forecast or prediction. The views expressed regarding market and economic trends are those of the author and not necessarily Amundi Asset Management SAS and are subject to change at any time based on market and other conditions, and there can be no assurance that countries, markets or sectors will perform as expected. These views should not be relied upon as investment advice, a security recommendation, or as an indication of trading for any Amundi product. Investment involves risks, including market, political, liquidity and currency risks.

Furthermore, in no event shall any person involved in the production of this document have any liability for any direct, indirect, special, incidental, punitive, consequential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lost profits) or any other damages.

Date of first use: 30 July 2026.

Document ID: 5486604

Document issued by Amundi Asset Management, "société par actions simplifiée"- SAS with a capital of €1,143,615,555 - Portfolio manager regulated by the AMF under number GP04000036 - Head office: 90-93 boulevard Pasteur - 75015 Paris - France - 437 574 452 RCS Paris - www.amundi.com

Photo credit: Rhenizara S @Getty Images Plus

Amundi Investment Institute

In an increasingly complex and changing world, investors need to better understand their environment and the evolution of investment practices in order to define their asset allocation and help construct their portfolios.

This environment spans across economic, financial, geopolitical, societal and environmental dimensions. To help meet this need, Amundi has created the Amundi Investment Institute. This independent research platform brings together Amundi's research, market strategy, investment themes and asset allocation advisory activities under one umbrella: the Amundi Investment Institute. Its aim is to produce and disseminate research and Thought Leadership publications which anticipate and innovate for the benefit of investment teams and clients alike.

Get the latest updates on:



- Geopolitics
- Economy and Markets
- Portfolio Strategy
- ESG Insights
- Capital Market Assumptions
- Cross Asset Research
- Real and Alternative Assets

Visit us on



[Visit the Research Center](#)

Amundi
Investment Solutions

Trust must be earned